

광주시 “광주FC 대표·단장 겸직, 지원예산 감독 강화” 혁신

대표이사 상근제 도입...내부 문제 적극 개입

‘선수단·사무국·시’ 수시 논의...복무규정 강화

수당 부당 수령, 경찰 수사에 이어 대표이사·단장·감독까지 연속 사임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프로축구 광주FC에 대해 구단주 광주시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혁신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 축구전용구장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FC 혁신을 위해 이사회 권한과 역할 강화, 선수단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 재정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선수단 중심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축구전문 경영인 출신의 대표이사를 상근직으로 선임

하고 단장까지 겸직하도록 조지를 구성했다.

그동안 광주FC의 대표이사는 비상근으로 기업후원 활동 등에만 역할이 국한돼 있어 조직 내부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최근 광주FC 직원들의 수당 부당 수령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표이사가 단장까지 겸직해 감독·선수들과의 소통을 비롯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선수단에서 요청한 물품과 급식체계를 확립하고 선수장비 관리, 숙소운

영의 편의성 제공, 훈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선수단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선수 영입과 이적, 선수단 운영 등에 대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무국의 선수단 중심의 행정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연 1회 하던 광주시 보조금 중간정산을 연 2회로 늘렸으며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정기이사회도 연2회에서 연4회로 늘려 추가경정예산, 운영상황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점검한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과근무 시스템은 사전승인 결재한 후 지문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복무관리 규정을 재정비했다.

사무국은 선수단에 대한 간섭 배제, 지역기업 후원 유치 등 지역밀착형 마

케팅 업무에 집중하도록 강화했다.

선수단과 사무국, 광주시의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대표이사와 감독, 광주시 관계자가 2개월에 한번 운영상황 공유와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회의 열고 3명의 시 인력을 지원한다.

이사회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주, 후원인, 선수 등 축구와 연관성 있는 이사로 점진적으로 개편한다.

시민친화형 구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다양한 팬 서비스 프로그램 편성, 정기적으로 서포터즈 간담회, 광주FC 후원을 위한 ‘시민 엔젤 클럽(ANGEL CLUB)’을 운영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육계와 선수단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광주FC가 현재의 난관을 뚫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고 시민들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축구전용구장 브리핑룸에서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프로축구 광주FC 신임감독, 대표이사 선임 등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FC는 올시즌 프로축구 1부리그 파이널A 무대에 진출하는 등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지만 사무국 직원의 수당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불거져 대표이사 등이 사임했으며 박진섭 전 감독이 FC서울로 이적했다.

김미희기자

광주FC 김호영 신임감독 선임·최만희 대표이사 내정

프로축구 광주FC 신임감독에 김호영 전 FC서울 감독대행(51), 대표이사에 최만희 광주FC 초대감독이 내정됐다.

광주FC 구단주 광주시는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호영 신임감독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만희 신임 대표이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감독은 금호고, 동국대를 거쳐 1990년대 일화(성남FC 전신)와 전북에서 활약했다.

1999년 현역 은퇴한 뒤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전임지도자를 역임했다.

지난 2006년부터 서울에서 코치, 2013년 강원팀을 이끌었다.

지난해는 강등 위기에 몰린 FC서울 수석코치, 최용수 전 감독 사퇴 뒤 감독대행을 맡아 9경기에서 4승 3무 2패를 기록했다.

최만희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서석초·동성중·전남기계공고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FC 초대 감독을 맡았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아이파크 대표이사, 대한축구협회 대외협력단장, 대한축구협회 이사를 역임



광주FC 김호영 신임감독. 김민정기자

전북, 새 사령탑에 김상식...소속 선수 출신 최초

모라이스 감독 후임으로 6대 감독 선임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조세 모라이스 감독으로 후임으로 김상식(44)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전북 구단은 22일 “김상식 코치를 감독으로 승격해 제6대 사령탑으로 선임한다”라고 밝혔다.

소속 선수 출신으로 전북 지휘봉을 잡는 건 김 감독이 처음이다.

전북은 김 감독이 선수단 지휘와 경기 운영능력이 탁월하고, 팀의 철학을 누구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99년 성남 일화(현 성남FC)에서 프로 데뷔한 김 감독은 2009년 전북으로 이적해 2013년까지 선수로 활약하다 2014년부터 코치로 변신해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12년간 전북에 몸담은 그는 누구보다 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북 입단 첫해부터 주장으로서

팀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했고, 전북의 창단 첫 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2013년 현역 은퇴 후에는 2014년 최강희 전 감독을 보좌하며 선수와 감독 사이의 가교 역할과 후배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2018년 최 감독이 중국으로 떠난 뒤에도 선수단이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유지했다.

김 신임 감독은 “전북은 나의 팀이다. 감독으로서의 위치가 아닌 전북현대 팀원의 한사람으로서 팀이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올해의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 시즌에 더욱 전북다운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북이라는 팀과 선수들의 능력을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 신임 감독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새 사령탑에 김상식 감독을 선임했다. (사진=전북 현대 제공)

나19) 확산에 따라 23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 감독 체제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는 전북 선수단은 내년 1월8일 소집해 남해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시작한다.

서선욱기자

고진영, 女골프 연속 74주 세계 1위 유지

김세영 2위·박인비 3위...김효주 9위·박성현 10위



여자 골프 세계랭킹의 상위권 변화는 거의 없었다. 고진영(25)은 여전히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

22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고진영이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이로써 지난 2019년

7월 이후 연속 74주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고진영은 지난 2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0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해 우승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8월 캐나다 피시픽 여자오픈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통산 7번째 우승을 신고해 세계랭킹 1위 자리도 지켰다.

고진영은 시즌 총상금 166만7925달러를 기록해 2년 연속 상금왕을 거머쥐었다.

김세영(27)은 세계랭킹 1위 탈환을 노렸지만,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에 머물러 세계랭킹 2위에 그쳤다.

하지만 김세영은 생애 최초로 LPGA ‘올해의 선수’에 등극했다.

박인비(32)는 여전히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넬리 코르다(미국)는 4위에 올랐고, 재미코포 대니엘 강은 4위에서 5위로 한단계 내려앉았다.

호주교포 이민지는 8위를 지켰고, 김효주(25)와 박성현(27)은 여전히 9, 10위에 자리했다. 뉴스

류현진 ‘최고 왼손투수’ 워렌 스팅상 수상...야 최초

ML 최고 좌완 투수에 주어지는 상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메이저리그 최고의 왼손 투수로 뽑혔다.

미국 디 오클라호마는 22일(한국시간) “류현진이 2020시즌 워렌 스팅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알렸다.

워렌 스팅상은 최고의 좌완 투수로 꼽히는 워렌 스팅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통산 750경기에 등판해 363승(245패)을 올린 그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왼손 투수에게 주어지는 워렌 스팅상을 아시아 투수가 받는 건 류현진이 최초다.

랜디 존슨(은퇴)과 클레이튼 커쇼(LA 다저스)는 나란히 네 차례씩 워렌 스팅상을 차지했다.

류현진은 LA 다저스 소속이던 2019년에도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 자책점 1위(2.32)에 오르며 수상을 기대했지만, 패트릭 코빈(워싱턴 내셔널스)에게 밀린 바 있다.

그러나 토론토도 이적 첫 시즌이었



던 올해도 예시다운 활약을 펼치며 워렌 스팅상을 거머쥐었다.

류현진은 2020년 12경기 5승2패 평균자책점 2.69를 기록했다. 류현진을 앞세운 토론토는 2016년 이후 4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기도 했다. 뉴스

손흥민 ‘EPL 올해의 팀’ BEST 11에 선정

케인·살라와 스리톱 어깨 나란히...헝스카이스포츠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손세이셔널’ 손흥민(28)이 영국 스키스포르츠 선정 2020년 EPL 올해의 팀에 뽑혔다.

스카이스포르츠는 22일(한국시간) 전문 매널인 리버풀 전설 제이미 캐러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레

전드 케리 네빌이 선정한 EPL 올해의 팀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4-3-3 포메이션의 최전방 스리톱 왼쪽 공격수에 이름을 올렸다. 토트넘 동료 해리 케인, 모하메드 살라(리버풀)가 짝을 이뤘다.

손흥민은 2019-2020시즌 정규리그

게인 통산 최다 공격포인트(11골 10도움·21개)와 공식전 최다 공격포인트(18골 12도움·30개)로 커리어하이를 찍었다.

동시에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EPL 10(골)-10(도움) 클럽 가입에도 성공했다.

이번 시즌도 리그 11골(4도움)로 득점 랭킹 공동 2위에 올라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까지 총 14골(7도움)을 넣었다.

또 지난 리버풀전 득점으로 2015년 토트넘 입단 이래 공식전 99골을 기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버리전 70m 원더골로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의 ‘더 베스트 풋볼 어워즈’에서 올해 가장 아름다운 골을 넣은 선수에게 수여 하는 푸스카스상까지 거머쥐었다.

올해의 팀 중원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맨유), 케인 더 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 조던 헨더슨(리버풀)이 자리했다.

수비는 트레트 알렉산더 아놀드 버질 판 다이크, 앤드류 로버트슨(이상 리버풀), 코너 코디(울버햄튼)가 선정됐다. 골키퍼는 알리송(리버풀)이다.

한편 손흥민의 토트넘은 오는 23일 스토크시티와 카라바오컵(리그컵) 8강전을 앞두고 있다.

뉴스